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느 프로 레슬러**



1998년 5월 멕시코시티 프로 레슬링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은 한 늙은 레슬러의 은퇴식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1975년 프로 레슬링에 입문해 항상 황금색 가면을 쓰고 경기해 온 그는 '마법사의 폭풍'으로 불렸습니다. 화려한 분장뿐 아니라 그의 현란한 개인기는 관중을 열광시켰으며, '마법사의 폭풍'은 위기의 순간마다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상대 선수를 제압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준 '마법사의 폭풍'은 어느새 53세의 중년이 되어 끝까지 자신을 아껴 준 팬들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법사의 폭풍'이 링 위에 오르자 관중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로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는 관중의 갈채를 한 몸에 받으며 링 중앙에 섰습니다. 관중의 박수가 잦아들 즈음, '마법사의 폭풍'은 황금가면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관중들은 그가 준비한 선물에 놀라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황금가면을 벗은 그 또한 감격스러워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의 신부인 세르지오 구티에레스입니다. 프로 레슬링을 하는 동안 저는 고아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한동안 관중의 정적이 이어지더니 더욱더 뜨거운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세르지오 신부는 23년 동안 '신부'라는 신분을 감춘 채 얻은 수익금으로 3천여 명의 고아들을 돌봐 온 것입니다.

신부로서 프로레슬러가 된 것이 신학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어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사랑앞에 아무도 할 말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디 감히 신학이란 것으로 그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신다고 비난받으시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기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2월 23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성경을 품에 안고 하늘로 간 남편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대구지하철을 탔던 남편 김창제씨(69)로부터 전화로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석태순씨(66·대구동촌동)는 그로부터 5시간 뒤 성경책을 꼭 품은 채 눈을 감은 남편의 시신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석씨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됐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은 것은 18일 오전 10시 쯤. 김씨가 30여년을 한결같이 출석해온 대구 남산동 서부교회의 기도모임에 참석차 집을 나간지 30여분 남짓 지난 때였습니다.

"처음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남편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끊어지는 바람에 제가 다시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다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의외로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땐 아마 들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석씨는 오후 4시쯤 교회로부터 남편의 시신이 가야기독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김씨는 성경책을 허리띠 안에 꼭 끼운 채 엎드린 자세였으며 성경책이 물에 조금 젖었을 뿐 상태가 비교적 깨끗한 것으로 미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신원 확인이 다른 사망자들에 비해 빨리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책 안에 꽂혀 있던 교회주보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주보를 보고 교회로 연락했고 다시 교회에서 석씨에게로 연락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인인 석씨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김씨는 평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소 실천해온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서부교회 안수집사로 각종 봉사와 섬김을 묵묵히 해왔으며 특히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한 점이 돋보였다고 주변사람들은 전했습니다. -국민일보-

◀눈물나는 밤엔 유머의 촛불을▶ **금연 캠페인(1)**
 ★만약 담배가 우리몸에 좋다면.....★
 어머니: (공부하는 아들에게) 애야 !!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담배 한 대 피고 하거라...
 아버지:(들고 있다가 옆에서 거든다) 그래 엄마 말 듣고 담배 한대 피.
 어머니: 저기 여보.. 애 공부하는데 빨리 여기 앞에 슈퍼 가서 담배 하나 사오구려.. 우리 애 지금 피고 있는 걸루요..
 ★백해무익한 담배! 이번엔 꼭 끊읍시다.

엄마가 딸에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싸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사두지 마라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때문에
 분위기가 망쳐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슬퍼했던
 지하철 사고였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44(요한 1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509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영길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 22:54-62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베드로의 약함'	김성국 목사
특별연주 Hymn	"너 축복하려고/ 주기도문"	박경주, 이요나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박 실, 변민강 집사 가정, 2절: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	김교섭	김경숙	이세진, 박혜련	경덕현, 고성일
9	김순자	김동숙	최득수, 오지영	권용일, 김경구
16	김영길	김반석	박 실, 변민강	김교섭, 김덕준
23	김종건	김봉희	정종일, 이선애	김반석, 김성국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말씀 묵상중 떠오른 말씀의 의미가 가슴을 설레게 하여 당장 수요일예배에서 설교했습니다. "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교회는 세상을 이기려고 해야지 교회가 교회를 이기려고 하면 교회 존재의미를 잃어버린것이라는 뜻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 같보리교회가 이겨야 하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다른 교회와는 친구요 동반자입니다.

- 1.교우소식
*등록하심을 축하합니다. 이일원, 김혜경 성도(2선교회), 영운, 전윤
☎521-5928 ☐ 16 Worley Pl. St.John's Park.
*개업:최득수 집사, Cheap Cabs Taxi, 개인호출 0800-2-123-456
- 2.'부활절 헌금을 위한 성경쓰기 봉헌'(담당:박병민 집사, 황준작:김영길 집사)
*자원하신 교우께서는 준비된 규격종이를 사용하셔서 필서하여 주십시오.
- 3.남여선교회: 매월 마지막 주일 Teatime시간에 정기월례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4.새벽기도회: 일주일에 하루 갖는 새벽기도회는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일엔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도로 영이 맑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 5.친선축구경기(남선교회, 청년): 오늘 은혜와진리교회(Howick)와 갖습니다.
*선수로 뛰실 교우들을 기다립니다(문의: 감독 박일영 집사, 주장:이재영 집사)
뛰는 남편의 눈은 아내의 응원을 안 보듯하지만 훤히 다 보며 어깨에 힘준다는 것 아내들은 모를겁니다
<시간> 오후 5시 <장소> Edgewater college, 30Edgewater Dr.Pakuranga



◀착한 시인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어느덧...
낮은 여름인데 밤은 가을입니다.
낮은 초록인데 밤은 은빛입니다.
가을 속내를 내보이는 달빛으로
무언가 가을을 타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떠오르는 가을
감흥이 없습니다.
무심코 마당에 나간 김에 하늘
을 보았더니 만삭되어 가는 달
이 있었습니다.
섬진강 시인에게 비쳤던 그 달
일 겹칩니다